

# 車 100대 중 1대는 전기차 ... 친환경 열풍에 등록률 1%

### 전기차 24만 1천대 돌파 ... 신차 출시 러시에 등록률 1% 육박 광주, 지자체 보조금 확정 이후 구매 크게 늘어 등록 비율 급증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100대 중 1대는 전기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보조금 지급 등에 힘입어 국내 전기차 등록률이 지난해 약 1%를 기록했다. 최근 자동차업체가 전기차 모델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전기차 등록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총 2501만5291대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전기차는 총 24만1182대로 0.96%를 차지했다. 반올림할 경우 처음 1%를 기록하게 된다.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4년 말 3000대를 넘지 못해 비중이 0.01%에 그쳤다. 하지만 2017년 처음 0.1%를 넘긴 이후 2018년 0.24%, 2019년 0.38%, 2020년 0.55%, 지난해 0.93%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규모 확정으로 구매가 크게 늘면서 1월 말 0.93%였던 전기차 등록 비중이 한 달새 0.03%포인트 오르기도 했다.

실제 광주시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말 광주지역 등록 차량 70만2532대 중 전기차는 5204대로 등록 비중은 0.74%였다. 이후 보조금 규모가 확정돼 구

매가 늘어난 지난해에는 총 70만3173대 중 5652대로 0.80%를 기록하는 등 한 달 새 0.06%포인트 증가했다. 전국 증가율의 두 배를 기록한 셈이다.

최근 국내를 비롯한 수입차업체 역시 앞다퉀 전기차 신규 모델을 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 등록 비중이 곧 1%를 돌파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등 출고가 지연되고 있으나, 전기차 신규 모델이 출시되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제네시스, 기아는 아이오닉5를 비롯해 EV6, GV60, 코나EV, G80·GV70 전동화 모델을 출시했고, 올해에는 아이오닉6, 스타리아 전기차, 니로 EV 등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선보인다.

한국GM과 쌍용차도 볼트 EV와 볼트 EUV, 코란도 이모션, J100 등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거나 출시할 예정이고, 수입차 가운데는 더 뉴 EQE, 더 뉴 EQB, i4, 뉴 미니 일렉트릭, Q4 e-트론, 폴스타 2 등의 모델들이 쏟아진다.

정부가 늦어도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하이브리드를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며 향후 전기차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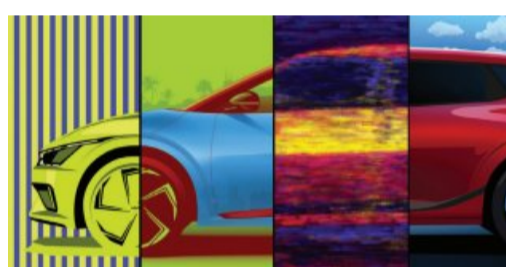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차 EV6



◀현대차 아이오닉 5



Opposites United of EV6



Sustainable movement



Autumn Allure(가을의 매력)

## 기아, 국내 차 브랜드 최초 NFT 발행

기아가 국내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 토큰)를 발행한다.

기아는 전기차 라인업을 활용해 디자인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기아 EV NFT' 6개 작품을 다음 달 1일까지 NFT 유통 플랫폼 '클립 드롭스'(Klip Drops)에서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NFT는 특정 자산의 소유권과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에 저장한 디지털 자산의 한 종류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와 달리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받기 때문에 희소성을 지닌다.

기아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고유의 브랜드 경험으로 고객의 삶에 영감과 여유를 선사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아트 형태의 '기아 EV NFT'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기아 디자인센터 디자이너들은 '기아 EV의 현

디지털 자산 '대체 불가 토큰'

기아 EV NFT 6개 작품

작품별 10개 씩 총 60개 판매

재와 미래'를 주제로 'EV6', 2023년 전기차 라인업에 추가될 예정인 플래그십 모델 EV9의 콘셉트 카 '콘셉트 EV9', 올해 상반기 출시될 친환경 SUV '니로 EV'를 디지털 아트로 제작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작품은 EV6를 활용한 'Opposites United of EV6' (EV6의 오퍼지 유나이티드)·'완성의 미학' (Aesthetics of completion)·'PORTAL' 3종, 콘셉트 EV9를 활용한 'Au-

tumn Allure' (가을의 매력)·'Sustainable movement' (서스테이너블 무브먼트) 2종, 니로 EV를 활용한 'The PROCESS' (더 프로세스) 1종이다.

기아 EV NFT는 카카오프렌즈 계열사 '그라운드X'에서 운영하는 NFT 유통 서비스 '클립 드롭스'에서 350클레이(KLAY) 확장가로 작품별 10개씩 총 60개가 판매될 예정이다.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클레이를 매수한 후 '클립 드롭스'로 클레이를 전송해 원하는 작품을 구매하면 된다.

기아는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수익금 전액을 해양 생물 보호를 위한 페어구 관련 인식 개선과 해양 환경 보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에 기부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무산

### 인수대금 2700억 납입 못해 쌍용차 "계약 해제" 선언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결국 무산됐다. 그간 인수자금 마련 능력을 의심받아온 에디슨모터스가 시한 내에 2700억여원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쌍용차는 28일 오전 공시를 통해 "당사는 서울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관계인집회 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투자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관계인집회 기일이 지정된 이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기 위해 채권 변제율을 제고하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등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인수인이 인수대금을 내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인 집회는 다음 달 1일 예정이었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지난 25일까지 인수대금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납입 실패로 계약이 해제됐고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는 최종 무산됐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지난 1월 10일 쌍용차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지 두 달여 만에 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쌍용차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때로부터는 다섯 달여 만이다.

쌍용차는 "지난 18일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M&A 절차 공고 이전부터 이미 거래소 공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익히 알려졌던 사항으로, 인수인이 이를 감안해 투자자 모집 등을 준비했어야 할 사항이며 일할 또는 투자계약의 전제조건도 아니었다"고 계약 해제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인약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연장된 관계인 집회까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연기시 7월 1일)만 허비하게 된다"며 "재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 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에디슨모터스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잔금 미납과 별개로 계약 체결 당시 약속했던 운영자금 500억원 가운데 300억원만 지급했고, 200억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계약 해지 사유가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미납이어서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 305억원도 돌려받지 못할 전망이다.

쌍용차는 향후의 계획과 관련해 "이번 투자계약 해지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모색해 신속하게 재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상 허용되는 기한 내에 새로운 회생 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아울러 "신차 'J100' 출시 일정 확정 등 M&A를 절차를 시작한 작년 6월과 비교하면 현재 매각 여건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인수자가 없으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업은행 등을 통한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와 쏘카가 커넥티드 카 운영체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 “공유차량도 개인차처럼 편안하게”

### 현대차 - 쏘카 MOU

### 커넥티드카 운영체제 연동

현대차는 자체 개발한 커넥티드카 운영 체제를 쏘카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한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차는 최근 서울 성동구의 쏘카 서울오피스에서 '커넥티드카 운영체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커넥티드 카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ccOS)에 쏘카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해 쏘카를 이용하는 고객이 개인에게 최적화된 운전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은 쏘카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운전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시트 자세, 공조, 사이드미러 위치, 인포테인먼트 설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현대차는 차량의 내비게이션에 적용한 지도 플

랫폼인 '루토'(Routo)와 쏘카의 차량 관리 시스템도 연계한다. 이를 통해 공유 차량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차량 이용 후 반납을 위한 주차장 검색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차는 2020년 GV80을 시작으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모든 모델에 ccOS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 연말부터 출시하는 현대차 신차에 ccOS를 확대 적용하고,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쉐보레, 초대형 SUV '타호' 4월 고객 인도 시작

GM의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는 초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타호'의 고객 인도를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월 쉐보레 온라인 샵에서 사전계약이 시작된 타호는 1994년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풀사이즈 SUV다.

타호는 전장 5352mm, 전폭 2057mm, 전고 1925mm로 큰 차체를 지니고 있으며, 22인치 크롬 실버 프리미엄 페인티드 휠이 장착됐다.

쉐보레는 타호 출시를 통해 국산과 수입 브랜드를 통틀어 국내 최초로 소형에서 초대형을 아우르는 SUV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됐다.

쉐보레는 국내 생산 제품과 수입 제품의 '투트랙' 브랜드 전략도 강화한다. 2분기 고객 인도를 앞둔 볼트EV와 볼트EUV를 포함해 2025년까지 전기차를 다수 출시해 내수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



를 높일 예정이다.

쉐보레는 트랙스로 소형 SUV 시장을 개척했고, 콜로라도를 통해 미국 정통 픽업트럭도 시장에 선보였다.

카허 카젠 한국GM 사장은 "쉐보레의 SUV 라인업을 한층 더 보강하는 한편 국내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경험을 더욱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